

‘망언’의 또 다른 원형*

-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와 관련하여-

정 응 수**

目 次

1. 시작하는 말
 2. 구보타(久保田) 망언과 논리적 근거
 3. ‘식민지 은혜론’
 4. ‘자기는 자기, 선조는 선조’
 5. 끝내는 말
-

1. 시작하는 말

2004년도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시작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독도 일본영토 발언이 그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 일본영토 발언¹⁾은, 한국정부의 독도 우표 발행에 대응하여 일본도 독도 우표를 발행하지는 아소 타로(麻生太郎) 총무청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독도가 일본영토이므로 한국측이 잘 분별해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한일간에 파문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한일 네티즌들이 서로 상대국을 비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트래픽 폭격이나 게시판 등을 통한 비방 등으로 상대국 사이트를 공격하는 ‘사이버 임진왜란’이 벌어졌는가 하면,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 기도와 한국 시민단체의 항의 집회 등이 잇달았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망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3년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의 망언을 시작으로 최근의 고이즈미 총리에 이르기까지 수십 회에 달하는데, 이러한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망언을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는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²⁾. 즉, 망언을 1) 1910년의 한일합방은 한일 양국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일본은 한국에서 좋은 일도 했다 3) 나쁜 것은 일본만이 아니고 한국측에도 문제나 책임이 있다는 3가지로 정리한 다음, 이러한 망언의 원형에 이른바 ‘구보타 망언’이 있으며, 이 구보타

* 이 논문은 2003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부교수 일본학 (비교문학 · 비교문화)

1) 물론 독도 일본영토 발언은 고이즈미 총리가 처음이 아니다. 1965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독도는 예로부터 일본영토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한 이래, 1984년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외상, 2000년 모리 요시로(森喜郎) 총리를 거쳐 2004년의 고이즈미 총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만 해도 십여 차례에 이른다.

2) 『「妄言」の原形』증보 3판, 木犀社, 2002년, 286쪽. 1996년 이 책의 증보신판이 최혜주에 의해 『일본 망언의 계보』(도서출판 한울)란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2002년에 내용이 보강된 이 책의 증보 3판이 다시 발행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혜주의 번역본 대신 증보 3판을 사용할 것이다. 이하 이 책을 인용할 경우에는 서명과 쪽수만 기입한다.

망언의 배경에는 1948년 무렵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가 작성한 「조선 통치의 성격과 실적(朝鮮統治の性格と実績)」과 1949년 외무성이 작성한 「할양지에 관한 경제적·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割讓地に關する經濟的財政的事項の處理に關する陳述)」이 있다고 했다.

물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발언은 당연히 194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그런 점에서 다카사키의 주장은 정확한 지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인의 망언을 단순히 35년 간 식민지 지배의 미화관 측면이 아니고, 과거의 합리화관 측면에서 바라보면 에도(江戸)시대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임진왜란을 둘러싼 하쿠세키의 평가가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현대 일본인들의 망언과 그 논리 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다카사키가 망언의 원형이라고 언급한 구보타 망언을 살펴본 다음, 그를 포함한 일본인들의 과거 합리화 발언이 하쿠세키와 얼마나 같은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 구보타(久保田) 망언과 논리적 근거

그러면 먼저 다카사키의 글에 의지해³⁾ 구보타 망언과 그 논리적 근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구보타 망언은 1953년 10월 15일에 열린 제3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분과위원회 제2회 회의석상에서 나왔다. 1952년 2월에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는 한일기본관계조약문제, 재산청구권문제, 어업협정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 선박의 반환문제 등이 거론되었는데, 일본측이 식민지 시절 남한에서 살던 일본인들의 재산청구권을 고집하여 그해 4월 결렬되고 말았다. 일본측은 일본이 조선을 포기한 1945년 8월 당시 38도선 이남에 있던 일본의 공유재산을 한국이 취득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일본인이 갖고 있던 사유재산은 개인이 정당한 수단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본이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 사유재산도 한국측이 미군정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일본측에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즉, 38도선 이남에 있던 일본인의 사유재산은 1945년 12월에 공포된 미군정 법령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이 취득했고, 이것이 1948년 9월에 체결된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 따라 미군정청에서 한국측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제1차 회담은 결국 깨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일 두 나라 사이에는 일본에 밀입국한 한국인의 강제송환문제나 평화선을 침범하여 나포된 일본인 어부의 송환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1년 후인 1953년 4월에 제2차 한일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런데 일본이 계속 청구권을 고집하는데다가 한국도 6. 25 휴전협상 문제로 바빠서, 두 나라가 휴전 성립 후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연기했다. 그러다가 1953년 10월 6일 일본의 요청에 의해 제3차 한일회담이 도쿄(東京)에서 개최되어,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어업분과위원회, 재산청구권분과위원회, 재일한국인의 국적분과위원회, 기본관계분과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13일에 제2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측은 일본의 재한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고 평화선도 국제법상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일본측 수석대표인 구보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여 각 분과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 구보타 망언은 15일에 있었던 재산청구권분과위원회 제2회 회합에서 나왔던 것이다.

3) 『「妄言」の原形』, 224-251 쪽

구보타의 망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3장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야기 전개의 편의상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기로 하자. 문제가 된 발언은 첫째 36년간 일본의 한국강제 점령은 한국민에게 유익했고, 둘째 한민족의 노예화에 대해 언급한 카이로 선언은 연합국의 전시 히스테리의 표현이며, 셋째 재한일본인 재산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거해 처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넷째 대일강화조약 체결 전에 한국이 독립한 것도 국제법 위반이며, 다섯째 연합국이 일본 국민을 한국에서 송환한 것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5개 항목이었다.

그런데 구보타의 이 발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라는 본인의 말처럼⁴⁾, 일본정부에서 만든 공식 문건에 의거한 발언이었다. 다음의 인용을 보기로 하자.

일본의 조선통치가 구미 강국의 식민지 통치보다 더 조선인을 노예적으로 착취하고 그 행복을 유린했다는 논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항변의 여지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중략) 조선의 경제가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서 합방 후 불과 30여년 사이에 오늘날과 같이 일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분명히 일본이 지도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 재정면에서 일본이 조선에 준 원조는 정산하면 플러스이다.

(日本の朝鮮統治が歐米強國の植民地統治にも勝つて朝鮮人を奴隸的に搾取し、その幸福を蹂躪したといふ論告に對しては正當な抗辯の餘地があると私は信ずるのである。(中略) 朝鮮の經濟がこのやうなミゼラブルな状態から、併合後僅か三十數年の間に今日見るやうな一大發展を遂げるに至つたことは、慥かに日本の指導の結果であると言ふも過言ではない。(中略) 財政面においては、朝鮮に對する日本よりの援助は差引プラスである。5)

이것이 앞에서 말한 스즈키 다케오의 「조선 통치의 성격과 실적」이란 글의 일부분이다. 일본 대장성은 1947년에 재외재산조사회를 설치하여 조선·대만·사할린 등에서 패전과 함께 연합군에 접수된 일본인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1950년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대한 역사적 조사 日本人の海外活動に對する歴史的調査』란 이름의 35권짜리 책을 비밀리에 출판했다. 대상 지역이나 국가에서 배상을 요구해 오면 이를 근거로 거부하거나 삭감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조선편은 전 10권으로, ‘대륙 병참기지론’이나 ‘북선(北鮮) 루트론’을 주장한 조선 전문가로서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스즈키가 편집한 것이다. 위에 인용한 「조선 통치의 성격과 실적」은 조선편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보타의 두 번째 발언, 즉 카이로 선언에서 사용된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란 표현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비밀리에 출판되고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언으로 문제된 적은 없지만, 일본 보수파의 한국관 형성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한다⁶⁾. 하나만 더 인용하기로 하자.

(1)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들에 대한 일본의 시정이 결코 소위 식민지에 대한 착취정치라고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각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과 근대화는 전적으로 일본측의 공헌에 의한 것이다. (중략) 이 지역들에 대한 일본의 통치는 ‘반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10월 20일에 열린 제3회 본회의에서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용식이 그것이 공적인 발언이냐고 묻자, 구보타가 ‘물론 개인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훈령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妄言」の原形』, 235-236 쪽

5) 『「妄言」の原形』, 286-287쪽에서 재인용.

6) 『「妄言」の原形』, 287-288쪽.

(2) 다음으로 이 지역들에서 오랫동안 평화적인 생업을 유지해 오고 있던 일본 국민이 전부 추방되고, 일본 자산은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의해 평화리에 축적한 사유재산까지도 이미 사실상 박탈당했고 (중략) 이러한 가혹한 조치는 국제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3) (전략) 이 지역들은 모두 당시로서는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상 보통으로 인정되던 방식으로 취득되었고, 세계 각국도 오랫동안 일본령으로 승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이 지역들을 포기하는데 이의가 없지만, 과거에 이 지역들을 취득하고 보유한 것을 국제적 범죄시하고, 징벌적 의도를 배경으로 하여 이 지역들의 분리와 관련되는 여러 문제 해결의 지도 원칙으로 삼는 것은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一) 先ず指摘したい点は日本のこれら地域に對する施政は決していわゆる植民地に對する搾取政治と認められるべきでないことである。(中略) 各地域の經濟的、社會的、文化的向上と近代化はもっぱら日本側の貢獻による。(中略) 日本のこれら地域の統治は「持ち出し」になっていたといえる。

(二) 次にこれら地域において長年にわたつて平和的な生業を營んでいた日本國民は全部放逐され、日本資産は公有財産のみならず彼らの努力により平和裏に蓄積された私有財産までがすでに事實上剝奪されてあり(中略)かかる苛酷な措置は全く國際慣例上、異例のことに屬する。

(三) (前略) これら地域はいずれも當時としては國際法、國際慣例上普通と認められていた方式により取得され、世界各國とも久しく日本領として承認していたものであつて、日本としてはこれら地域の放棄には異ならないが、過去におけるこれら地域の取得、保有をもつて國際的犯罪視し、懲罰的意圖を背景として、これら地域の分離に關連する諸問題解決の指導原則とされることは、承認し得ないところである。7)

이것은 「할양지에 관한 경제적·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이라는 5쪽짜리 팜플렛의 일부로, 대일강화조약을 앞두고 배상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1949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하여 미국측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좀 길지만 구보타 발언의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인용했는데, 이를 보면 구보타 발언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 발언이 모두 이 문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구보타 발언이 문제가 된 후 일본정부가 취한 일련의 태도를 보면, 일본정부도 구보타 망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10월 21일에 열린 제4회 본회의에서 한국측이 구보타 발언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구보타가 이를 거절하여 제3차 한일회담이 결렬되자, 일본 외무성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정보문화국장의 담화 형식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을 비난했다. 이어서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외무장관도 기자회견을 갖고 구보타 발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한 것뿐이라며 구보타를 지지했고, 다음 날인 10월 22일에 외무성 정보문화국장이 다시 담화를 발표하여, 한일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한국측의 사전 계획에 의한 것 같으며 일본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결국 실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오가타 다케토라(緒方竹虎) 부총리, 오카자키 외무장관,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보안청 장관이 회동하여 주일 한국대표부의 폐쇄 등 8항목에 걸쳐 한국에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10월 27일부터 열린 일본 참의원 수산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오카자키 외무장관이 구보타의 발언은 보통의 일을 보통으로 말한 것뿐이라며 구보타를 옹호했고,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 즉, 구보타 망언은 일본정부가 전면적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회도 이를 묵인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구보타 망언은 본인의 말처럼,

7) 『「妄言」の原形』, 288-289쪽에서 재인용.

사적인 발언이 아니고 공적인 발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평화선 침범으로 한국에 나포된 일본 어부들의 송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회담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쫓기고 있던 일본은, 마침내 1957년 구보타 발언을 철회하고 재한일본인 재산청구권도 포기한다는 외교 메모를 한국에 전달했다. 이로써 구보타의 5개항 발언과 일본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어 한일회담이 재개되었지만, 구보타가 갖고 있던 과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즉 식민지 지배가 한국에게 유익했다는 인식까지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한일교섭이 최종단계에 접어든 1965년 1월 7일 제7차 한일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가 일본 외무성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한 발언을 보면 그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한 다음, 한국의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것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이며, 한국이 20년 정도 더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은 한국에 공장이나 가옥, 삼림 등을 다 두고 왔으며, 창씨개명도 한국 사람을 동화시켜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착취나 압박 같은 것은 없었다⁸⁾고 했다. 그런데 다카스기의 이 발언은 한일회담의 중단을 우려한 한일 양국 대표단에 의해 없었던 일로 되었다. 즉 ‘틀린’ 발언이 아니고 ‘없었던’ 발언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구보타나 다카스기가 말한 소위 ‘식민지 은혜론’이란 발언은 그 후로도 계속 살아남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 ‘식민지 은혜론’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보타 망언의 제1항, 즉 이른바 식민지 은혜론은 1953년 10월 15일에 있었던 제3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분과위원회 제2회 회합에서 나왔다. 사실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안건은 재한일본인 재산청구권 문제였다. 1, 2차 회담이 결렬된 것도 바로 이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따라서 제3차 한일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날의 회합도 이 청구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구보타가 계속 일본의 청구권을 주장하자, 한국측은 일본이 계속 36년간의 축적을 돌려달라고 하면 한국도 36년간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구보타가 만일 한국에서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일본도 조선에서 항만이나 철도를 만들고 농지를 조성했으며, 대장성에서 많은 해에는 2,000만 엔이나 지출한 적이 있는데 이를 돌려달고 주장하여, 한국측의 청구권과 상쇄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에 한국측에서 만일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더 발전했을 것이라고 하자, 구보타가 일본이 아니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침략했을지도 모른다는 등 격론이 오가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5개항의 망언이 나왔던 것이다. 구보타는 그 뒤 참의원 수산위원회에 출석해서도, 한국이 36년의 통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면 일본도 총독정치의 좋았던 점, 즉 민동산이 푸른 산으로 변하고 철도와 항만이 건설되었으며 논이 경작 면적이 늘어난 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구보타의 망언이 엉겁결에 나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인식은 시이나 에쓰사부로

8) 『「妄言」の原形』, 295-296쪽

(椎名悦三郎)나 다카스기,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 잠깐 에토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만 한일합방이란 것은, 만약 제일 먼저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에 도장을 찍은 수상 이완용이다. 싫으면 거절했으면 그만이다. 일본도 나빴다. 일본도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으니까, 군대를 전국에 배치해 결코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놓고, 1주일 후에 (조약)을 발표했다. (중략) 그렇지만 일본은 좋은 일도 했어요. 고등농림학교를 만들었지요. 서울에는 제국대학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수준을 높인 셈입니다. 그 때까지는 교육이란 것이 전혀 없었던 셈이니까. 도로, 철도, 항만 정비, 산에 나무도 심었다. (중략) 일본의 경제계나 예능계에서 한국인이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다. M·H, M·K, I·H, 모두 그렇다(주·발언은 실명). 야구 선수나 L의 사장도 모두 그래. 아카사카(赤坂), 록본기(六本木)에 가 봐라. 한국 천지다. 파친코 주인의 7할이 한반도야. 일본은 그쪽에 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말야. 일본으로서는 모든 계층에서 한국이 활약할 수 있게 된 게, 한일합방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ただ、日韓併合というのは、もし第一に責めが問われるとするなら、その當時にハンコを押した首相の李完用だ。嫌なら拒絶すればよかった。日本も悪かった。日本も強引にハンコを押さしたものだから、軍を全土に配置して決して暴動が起こらないようにして、一週間後に(條約)を發表した。(中略) だけど日本はいいこともしたんですよ。高等農林學校を作りました。ソウルには帝國大學も作りました。そういう意味では教育水準を上げたわけです。これまではまったく教育というものが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道路、鐵道、港湾整備、山に木を植えた。(中略) 日本において經濟界や芸能界で韓國人が非常な活躍を遂げている。M・H、M・K、I・H。みんなそうだ(注・發言は實名)。野球選手もLの社長もみんなそうだ。赤坂、六本木に行ってください。韓國ばかりだ。パチンコ屋の七割が朝鮮半島だ。日本は向こうに行ってそういうことはしとらんがね。日本にしてはあらゆる階層で韓國が活躍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は、日韓併合の効果と言えるのかもしれない。9)

이것은 1995년 10월 11일, 당시 총무청장관이던 에토가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 발언의 일부로, 소위 ‘에토 망언’이라 불리는 것이다. 내용은 한일합방조약이 강제적으로 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일본이 식민지 시절에 좋은 일도 했다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이 11월 1일자로 발행된 회원제 정보지 『선택』에 소개되고, 이어서 11월 8일 『동아일보』에 소개되면서 한일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자, 에토는 그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합방조약은 강제적으로 조인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식민지 시절에 일본이 도로나 항만 등을 개발해 좋은 일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생각이 틀렸고 잘못이라며 자기의 발언을 정정했다. 그러나 이는 한일간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제스처이고, 그의 본심은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 발언에 있었다. 그가 1996년 1월 4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른바 ‘에토 망언’에 대해 왜 반성해야만 하는가, 일본은 그렇게 창피한 나라가 아니라며, 자신의 태도를 다시 바꿨기 때문이다.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그런데 에토의 발언 중, 한일합방이 강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소위 구보타 망언에는 없던 것으로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이 한일합방에 관한 이야기의 직접적인 원형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한일특별위원회에서 사토수상이 한일합방조약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로 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¹⁰⁾. 물론 이때 한국정부는 합방조약이 강

9) 『「妄言」の原形』, 313-314쪽에서 재인용.

10) 『「妄言」の原形』, 280쪽.

제적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한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인식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1986년에는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문부성장관이 『문예춘추』 10 월호에서 한국합병은 형식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모두 양국의 합의하에 성립되었다는 입장을 개진하여 한일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후지오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식으로 항의하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은 사임을 거부하는 그를 파면시켰다. 각료의 해임은 33년 만의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1995년 6월에는 와타나베 미치오(渡邊美智雄) 전 외무장관이 일본은 한국을 통치했지만, 한일합방 조약은 원만히 만들어진 국제적 조약으로 법률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어느 정도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은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에 의해서였다. 그는 1995년 10월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합방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쌍방의 입장이 평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토의 발언을 정식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한일합방이 무효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정부가 여전히 한일합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좋은 일도 했다는 이른바 '식민지 은혜론'¹¹⁾은 구보타의 망언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 식민지 은혜론을 듣고 있으면,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살았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제조의 은혜론'이 떠오른다. 18세기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 겸 정치가였던 하쿠세키는 고후한(甲府藩)의 한슈(藩主) 도쿠가와 쓰나토요(徳川綱豊)를 섬기다가, 이 쓰나토요가 1709년 제6대 쇼군(將軍)이 되자 바쿠후(幕府)의 실력자로서 수많은 정치 개혁을 이룩한 사람이다. 1711년에는 쇼군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일한 조선 사절의 접대 의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조선사절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가 쓴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조선의 군신도 명나라 천자 덕분에 그 재앙에서 벗어나 나라를 안정시켰지만, 명나라 군대가 여전히 그 나라에 주둔하며 장졸들이 교만하게 그 나라 사람을 능멸하는 일도 우리나라 병화에 뒤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든 백성들을 소생시키려고 하던 중,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다스리게 되면서 전대의 잘못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한 우리 군에 잡혀온 조선 남녀 중 송환된 수가 전후 3,000명에 이르게 되니 마침내 양국이 화해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그 나라 동서의 백성들이 전쟁을 잊은 지 이미 100년에 이르렀으니, 일본의 제조(再造)의 은(恩)을 그 나라 군신들은 오랫동안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朝鮮の君臣も明の天子のために其厄難を援けられて、其封内をば安堵しけれ共、明の兵猶其國に留り鎮めて、其將士相驕り國人を凌轢せし事も、我國の兵禍に大方かはる事もなかりしかは、いかにもして國人を蘇息せん事をおもひしに、東照宮御代をしろしめされて前代の非を改られし事共を傳へ聞、又

11) 유명렬은 에토의 교육 운운하는 발언을 「'일제 은혜론' 망언, 역사적 증거로 분쇄할 때」(『동아일보』, 1995년 12월 8일)에서 증거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06년에 이미 평양 숭실학교에 대학부가 설치되어 숭실대학이라 칭했으며, 1908년에는 대한제국 학부(學部)의 인가도 받았다고 한다. 또한 1906년 7월 3일 자 대한매일신보에는 「평양대학교 설립을 축하함」이라는 제하의 장문의 기사가 실려 있다며, 당시 대한제국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에토의 발언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식민지 은혜론은 지배를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이니, 가해자가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말이 아니다. 가세 히데아키(加瀬英明)가 박대혁이라는 한국인 이름을 빌려 『추한 한국인』을 쓴 것도, 바로 피해자로부터 식민지 은혜론이 나와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행동으로 보인다.

朝鮮の男女我國の兵の爲にとらはれしものとも還し遣はされし所、前後三千人に及びければ、やがて兩國の和事なりて、夫より此かた彼國、東西の民兵革の事を相忘れし、且既に百年に及たり、我國再造の恩においては、彼國の君臣長く忘るべからざる所也¹²⁾)

1715년, 그의 나이 59세에 지은 『조선빙사후의(朝鮮聘使後議)』의 한 구절이다. 이 책은 평생에 걸친 독서 경험과 조선 사절을 접대한 체험 등을 토대로 하여 조선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여기서 일본이 조선에 ‘재조의 은’을 베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조의 은’이란, 원래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조선을 구원하여 조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를 가리키는 말로서, 1593년 1월 명나라 군대가 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자 조선의 예조 禮曹가 명나라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처음 사용한 말이다. 물론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명나라도 자기들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¹³⁾, 이 단어를 하쿠세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명나라의 도움으로 임진왜란은 끝났지만, 그 대신 명나라 군대의 횡포가 심해 조선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도큐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노력으로 두 나라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명나라 군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조선도 국가를 재건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조선은 일본의 이러한 은혜를 오랫동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어학이나 지리학, 고고학 등을 원용하여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¹⁴⁾ 하쿠세키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도로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이것이 임진왜란을 둘러싼 과거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아전인수식 인식은, 그 논리 구조에 있어서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현대 일본 정치인들의 인식과 너무나 흡사하다. 즉,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철도나 학교를 예로 들어 일본이 식민통치 시대에 좋은 일도 했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은혜론은, 일본의 침략전쟁인 임진왜란이 끝난 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조선과 화해하고서는 그 덕분에 조선이 재건되었으니 일본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하쿠세키의 재조의 은혜론과 논리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 일본의 정치가들이 말하는 과거사 미화 발언으로서의 식민지 은혜론은 이미 300여 년 전 하쿠세키의 재조의 은혜론에 그 원형이 있었던 것이다.

4. ‘자기는 자기, 선조는 선조’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제기된 정신대 문제가 한일간에 중요한 외교 문제로 등장하면서, 일본의 과거사 미화 작업이 그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치인들이 주로 담당했던 과거 미화 발언 대열에 학자나 평론가, 만화가, 교사, 변호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거 합류

12) 新井白石, 『朝鮮聘使後議』, 『新井白石全集』제4권, 國書刊行會, 1977년, 679쪽. 『朝鮮聘使後議』나 하쿠세키의 조선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응수의 「『江關筆談』を讀む」(『江戸の文事』, ぺりかん社, 2000년)를 참조할 것.

13) 韓明基, 「임진왜란 시기 ‘再造之恩’의 형성과 그 의미」, 『東洋學』第29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9년, 133쪽.

14) 宮崎道生, 『新井白石序論』増訂版, 吉川弘文館, 1976년 138쪽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회적 성격이 강했던 정치인들의 발언이—물론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지만—그들이 가세하면서 지속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반발에 부딪히면 바로 발언을 철회하는 정치인들과 달리, 그들은 유력한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의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마음 놓고 자기들의 주장을 글로 쓰거나 책으로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대략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식민지 지배라는 부채 때문에 한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침묵했지만 더 이상 사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신문과 잡지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며 이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도 「사죄할수록 나빠지는 한 일관계(『謝罪』するほど悪くなる日韓關係)」¹⁵⁾와 같이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정신대는 필요악이었다느니 일본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느니¹⁶⁾ 하며 반한 분위기를 조장했다. 더 이상 한국을 상대하지 말라며 ‘혐한(嫌韓)’이나 ‘염한(厭韓)’, ‘반한(反韓)’이란 단어가 신문과 잡지를 장식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또 하나는 일본인들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일본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다. 1995년 당시 도쿄대학 교수였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가 중심이 되어 만든 ‘자유주의사관연구회’는, 그때까지 근·현대사를 바라보던 일본인의 사관(史觀)을 ‘자학사관’이라 부르며 새로운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역사 교과서는 일본을 침략자나 가해자로만 묘사하는 자학사관에 의해 씌어진 것이므로, 이를 자유주의사관에 입각해 새롭게 고쳐 써서 일본인들이 과거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많은 일본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이 연구회 멤버들이 1996년 분담 집필한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教科書が教えない歴史)』는 발매 한 달 만에 15만부나 팔리는 등 그 해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듬해까지 2권, 3권이 잇달아 발간되어 1997년 여름까지 제1권 55만부를 비롯하여 총 100만부가 넘는 판매량¹⁷⁾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1996년 문부성 검정에 통과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정신대 관련 기술이 포함되자, 이 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역사 교과서에서 정신대 관련 기술을 삭제하는 운동¹⁸⁾을 벌이는 한편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의 일본 근대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 책이 2001년 문부성 검정에 통과되어 현재 전국 각지의 중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밝은 일본 국회의원연맹’이나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전국교육자협의회’, ‘일본교사회’ 등이 이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도 있다. 앞에 예로 든 활동들이 과거사를 적극 옹호하고 미화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임에 반해, 이 움직임은 과거와 절연하여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즉 과거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은 별개이므로, 과거 일본에 대한 책임을 현재의 일본에

15) 佐藤勝巳·田中明, 「『謝罪』するほど悪くなる日韓關係」, 『文藝春秋』, 1992년 3월호.

16) 이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논점별로 살펴보려면 다카사키의 『「反日感情」韓國・朝鮮人と日本人』(講談社, 1993년, 138-147쪽)이 좋다. 그는 이 책의 7장에서 정신대 문제를 다루면서 이에 대한 일본의 망언을 논점별로 간명하게 정리하여 검토하고 있다.

17) 김용범, 『일본주의자의 꿈』, 푸른역사, 1999년, 144쪽.

18) 일본 국내에서 벌어진 일본 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 내용의 요지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글로는 정재정의 「일본의 「망언」과 그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11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년, 393-412쪽)이 있다. 이 논문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5월 사이에 일본의 정계와 학계, 그리고 매스컴 등에서 전개된 역사 교과서 비판의 요지를 일지 형식으로 정리한 다음 각각의 역사관을 분석한 글이다.

게 묻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을 보기로 하자.

현재의 한일교류에서는, 객관적으로 봐서 한국 측에 보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거기에는 서로 역사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한국인은 선조로부터 이어져서 지금의 자기가 있다, 따라서 선조의 책임은 자기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사관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 선조는 선조라는 일본인의 주장을, 정말로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반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관에 관한 논의는 별로 없는데, 상당할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今のところの日韓交流では、客觀的に見て韓國の方により多くの問題があるのは事實ですが、それとは別に、そこにはお互いの歴史に對する考え方の違いもあるように思うんです。韓國人は、先祖からの引き續きで今の自分がある、だから先祖の責任は自分の責任でもあると考えます。そういう歴史觀でいるものですから、自分は自分、先祖は先祖だという日本人の主張を、なんて無責任なのかと感ずるんです。そこで、いつまでも「反省」を要求することになるんです。そういう歴史觀についての議論はあまりないんですが、相當にや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19)。

만주국 건국에는 나름대로의 필연성이 있었다거나 남경대학살은 논거가 희박한 주장²⁰⁾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과거사 미화에 앞장서고 있는 조치(上智)대학 명예교수인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가 대담 중에 한 말로, 한국인과 일본인은 역사관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은 조상이 있으니까 오늘날의 나도 있다고 생각하므로, 조상의 책임이 곧 내 책임이 되기도 하지만, 일본인은 선조는 선조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조의 책임이 곧 내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자꾸 일본인에게 반성을 요구하니까 일본인들이 그것은 조상들이 한 일이라 난 모른다고 대답하게 되고, 그러면 무책임하다고 또 비난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인은 역사를 연속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인은 비연속적인 것, 단절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말로서, 현대의 일본인에게 과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차대전 후에 나치를 청산했던 독일과 달리, 전후에도 2차대전 중에 활약했던 인물들이 계속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과거 역사와 단절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이 문제는 본 논문의 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자.

그런데 그가 주장한 이 '자기는 자기, 선조는 선조라는 이야기' 즉 과거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이 별개라는 이야기도 이미 하쿠세키가 300여 년 전에 한 이야기이다. 즉, 하쿠세키는 도요토미(豊臣) 시대와 도쿠가와(徳川)시대를 구분하여, 조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에 대한 원한을 도쿠가와 바쿠후(徳川幕府)까지 품고 있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이래로 계속된 화친 외교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²¹⁾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도요토미 시대와 도쿠가와 시대는 다른 시대일 뿐만 아니라 도쿠가와는 조선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데, 왜 도요토미에 대한 원한을 도쿠가와 바쿠후까지 간직하고 있는냐는 것이다. 일본이 재조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하쿠세키로서는²²⁾,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100여

19) 渡部昇一・吳善花, 『日本の驕慢 韓國の傲慢』, 徳間書店, 1993년 26쪽

20) 渡部昇一, 『日本史からみた日本人・昭和編』, 祥伝社, 1989년,

21) 宮崎道生, 『新井白石序論』 増訂版, 吉川弘文館, 1976년, 37쪽

22) 하쿠세키는 재조의 은혜 이외에도 조선이 일본의 덕을 본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이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제도가 아니고 명나라의 관복 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이 일본을 이용했기 때문이며, 심지어 조선이라는 국

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에 대한 원한을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던 조선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조선은 오랫동안 인호(隣好)를 맺을만한 나라가 아니다(朝鮮の事永く隣好を結ぶべき國に非ず)²³⁾'라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도 일본의 시대 변화는 의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719년 기해(己亥)사절의 제술관이었던 신유한이 『해유록』에서 '일본의 국토에 이미 수길의 남은 종자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어 친목을 도모하여 국서가 서로 연달아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덕의(德意)를 우리르고 있다²⁴⁾'고 쓴 것을 보면 도요토미 시대와 도쿠가와 시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한국인이 지금의 일본과 메이지 일본을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지배자가 바뀌었다 해도 일본은 일본이었을 것이다.

5. 끝내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대 일본인들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식민지 은혜론이나 역사의 단절 논리는 그들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미 18세기에 하쿠세키가 임진왜란 문제와 관련하여 구사한 적이 있는 논리였다. 즉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철도나 학교를 예로 들어 일본이 식민통치 시대에 좋은 일도 했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은혜론은, 임진왜란 후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조선과 화해하고자 하는 그 덕분에 조선이 재건되었으니 일본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하쿠세키의 발언과 논리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자기들 할아버지 대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오늘날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자기들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하는 요즘 일본인의 발언은, 도요토미(豊田) 시대에 일어난 임진왜란에 대한 원한을 도쿠가와(徳川) 시대까지 품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하쿠세키의 발언과 동일한 정신사적 맥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발언들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메이지 시대에 활동했던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를 비롯하여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호시노 히사시(星野恒), 미카미 산지(三上參次),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 등이 하쿠세키의 학문에서 영향을 받았으므로²⁵⁾, 하쿠세키의 조선관이나 과거 정당화 발언이 이들을 통해 메이지 시대의 정한론자들이나 후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있다²⁶⁾. 그렇지만 300여 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발언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가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일본의 덕택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즉, 청나라 강희제가 조선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자기 아들 중의 하나를 조선에 양자로 주겠다고 하자, 나라를 빼앗길까봐 겁이 난 조선 사신이 만약 이씨 이외의 다른 사람이 조선 임금인 된다면 일본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 하여 청의 요구를 물리쳤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하쿠세키의 오해로 사실이 아닌데, 자세한 것은 정응수의 『江關筆談』을 읽기(『江戸の文事』, ぺりかん社, 2000년, 55-57쪽)를 참조할 것.

23) 新井白石, 『朝鮮聘使後議』, 『新井白石全集』제4권, 國書刊行會, 1977년, 683쪽. 그런데 현대 일본인이 이제 더 이상 한국과 상대하지 말자며 반한론을 주장하는 심리도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닐까? 일본이 패전하여 식민지를 빼앗긴 지도 60년이 다 되어 가고 식민지 시절에 좋은 일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쿠세키가 처했던 상황과 닮은꼴로 보이기 때문이다.

24) 신유한, 『海游錄』, 『해행총재』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년, 98쪽.

25) 宮崎道生, 『新井白石の研究』増訂版, 吉川弘文館, 1984년, 731-732쪽.

일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그 떨어져 있는 세월만큼이나 두 발언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현대의 일본인과 하쿠세키가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임진왜란이라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과거 문제로 원한을 품고 있던 조선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을 찾으려고 고심했을 하쿠세키가 처한 상황이나, 역시 식민지 지배라는 지울 수 없는 과거 문제로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던 현대의 일본인이 처한 상황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300여 년이라는 세월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논리를 구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본인의 과거사 합리화나 미화 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그럴 경우 하쿠세키의 대응을 살펴보는 작업은 향후 한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300여 년 전 하쿠세키의 발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일 것이다.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비슷하게는 반복되는 것일까?



【參考文獻】

· 김용범(1999)『일본주의자의 꿈』, 푸른역사, 144 쪽

- 26) 한계옥은 『망언의 뿌리를 찾아서』(조양욱 역, 자유포럼, 1998년)에서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는 것은 에도 말기에서 메이지 초기에 걸쳐 형성된 황국사관이 배태한 정한론 때문이라며, 망언의 뿌리를 에도 말기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본의 조선 침략론에 동조한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하쿠세키에게 학문적 영향을 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쿠세키의 조선 사절 접대 의례 개정을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 이상으로 일본의 국위를 선양시킨 것이라고 평가한 우에다 가즈토시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는 일본인은 황색인종이지만 문명국민이므로 중국인이나 조선인과 똑같은 동양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조선 처분론’이나 ‘보호국론’을 강조하여 조선 침략을 합리화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한다(82쪽).

- 신유한(1986)『해유록』『해행총재』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98쪽
- 유영렬(1995)「'일제 은혜론' 망언, 역사적 증거로 분쇄할 때」『동아일보』12월 8일
- 정재정(1997)「일본의 「망언」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11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93-412쪽
- 한계옥(1998)『망언의 뿌리를 찾아서』, 조양옥 역, 자유포럼, 82쪽
- 한명기(1999)「임진왜란 시기 '再造之恩'의 형성과 그 의미」『東洋學』第29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33쪽

- 新井白石(1977)『新井白石全集』4권, 國書刊行會, 676, 679쪽
- 佐藤勝巳·田中明(1992)「『謝罪』するほど悪くなる日韓關係」, 『文藝春秋』, 1992년 3월호
- 高崎宗司(1993)「『反日感情』韓國·朝鮮人と日本人」, 講談社, 138-147쪽
- _____(2002)「『妄言』の原形」, 木犀社, 224-251, 280, 286-289, 295-296, 313-314쪽
- 鄭應洙(2000)「『江關筆談』を讀む」, 『江戸の文事』, ぺりかん社, 55-57쪽
- 宮崎道生(1976)『新井白石序論』増訂版, 吉川弘文館, 37, 138쪽
- _____(1984)『新井白石の研究』増訂版, 吉川弘文館, 731-732쪽
- 渡部昇一(1989)『日本史からみた日本人・昭和編』, 祥伝社
- 渡部昇一·吳善花(1993)『日本の驕慢 韓國の傲慢』, 徳間書店, 26, 30쪽



要 旨

本論文は、植民地支配と関連する現代の日本人の「妄言」が壬辰倭亂(文祿・慶長の役)に對する新井白石の發言と、同じ論理的構造をもっていることを指摘したものである。まず、現代の日本人のいわゆる「植民地恩惠論」と白石の「再造の恩惠論」が瓜二つである。すなわち、植民統治をより易しくするために作った鐵道や學校を例にあげて、日本は植民地時代によいこともしたと主張する「植民地恩惠論」は、壬辰倭亂が終わったあと、自分達の必要により朝鮮と和解し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おかげで朝鮮が再建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朝鮮は日本の恩惠に感謝すべきであるという、白石の「再造の恩惠論」と論理的に同一なものである。

また、現在の歴史と過去は別個のものであるという歴史意識においても、両者は一致している。つまり、日本の植民地支配は自分の先祖のやったことであるから、現代の自分達とは何の關係もないのに、どうして自分達に反省を要求しているのかという發言は、豊臣時代と徳川時代を區別して、豊臣に對する恨みを徳川まで抱えているのは不当であるという白石の發言と、同じ脈絡にあるものだと見える。

そして、このように現代の日本人と白石の發言が双子になったのは、彼らのおかれた狀況が非常に似ていたからであろう。つまるところ、壬辰倭亂に對する恨みを忘れていない朝鮮に向かって自分なりの對抗論理を立て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白石の立場と、何とかして植民地支配に對する反論を展開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現代の日本人の立場が同じだったからであろう。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狀況が解消されない限り、日本人の妄言や過去を美化する作業はこれからも續くのであろう。

キーワード：久保田妄言, 江藤妄言, 植民地恩惠論, 再造の恩惠論, 反韓論,
自虐史觀, 自由主義史觀, 歴史の非連續性

투 고 : 2004. 8. 31
1차 심사 : 2004. 9. 11
2차 심사 : 2004. 10. 2

住 所 : (330-707)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남서울대학교 외국어학부
電 話 : (041) 580 - 2173
E-mail : chunges@nsu.ac.kr